Ⅳ IFRS17의 경영 전략적 유인과 시사점

1. 보험영업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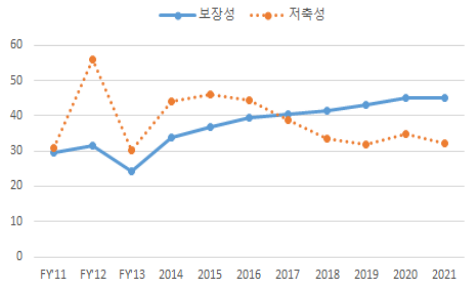
보험회사는 IFRS17 손익계산서상의 보험수익을 보험영업의 주 관리 지표로 이용할 것인가?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부채의 일부를 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수익이지만, 보험회사의 실제 당기 현금유입(수입보험료)과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험수익항목인 보험계약마진이 영업 관리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험계약마진이 큰 상품을 중심으로 영업할 것이며, 이는 사실 보험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회계제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온 방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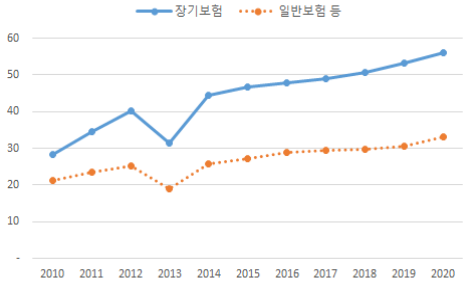
IFRS17 도입 준비를 위해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은 장기 보장성상품 위주로 판매 전략이 변경되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14년부터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보장성보험의 판매량이 저축성보험을 능가하였다. 손해보험회사는 장기보험이 일반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원수보험료 규모가 더 크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림 Ⅳ-1〉 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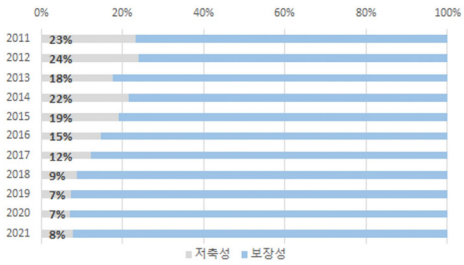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이 중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상품 변화를 좀 더 살펴보면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2011년 23%에서 2021년 8%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비중이 2011년 95%에서 2018년 81%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88%로 최근 다시 증가하였다. 신계약 건수는 감소하나 초회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위주의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에 의한 것[35] 이므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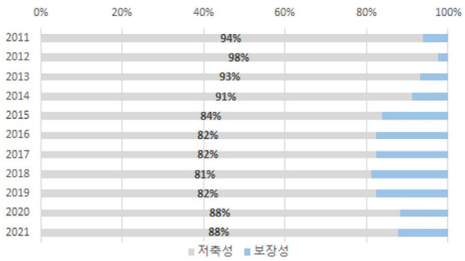
〈그림 Ⅳ-2〉 생명보험회사 보험종류별 신계약 건수 및 초회보험료 비중

〈신계약 건수〉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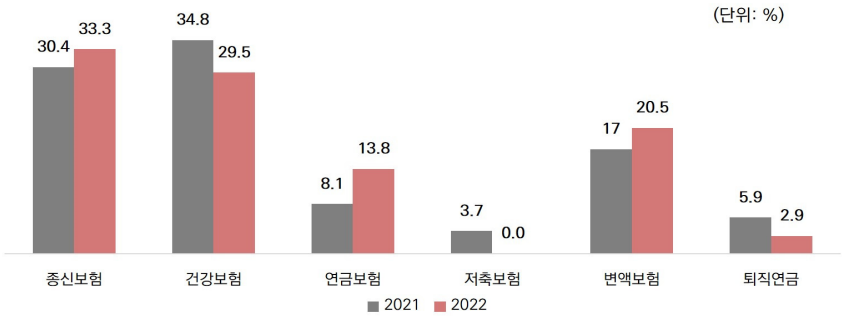
〈초회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이미 생명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를 지양하고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여전히 보장성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3〉 생명보험회사 향후 2~3년간 주력 상품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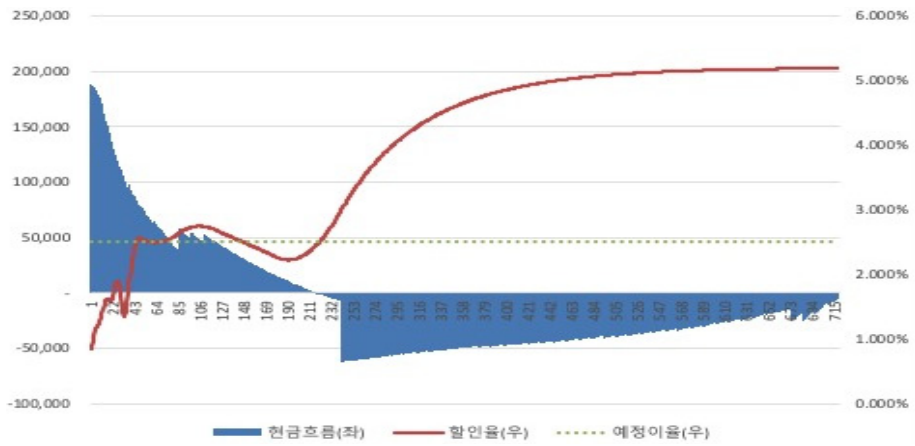
자료: 김세중·김유미(2022)

35) 김세중·김혜란(2022)

경영지표변화(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마진이 저축성보험보다 높으므로 매출 확대가 곧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되었다.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종신보험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 중인 상품이므로 생명·손해보험회사 업권 간 판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기선도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은 환경이 유지될 경우 보험영업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보험료 납입시점에는 예정이율 대비 낮은 금리, 보험금 지급 시기에는 예정이율 대비 높은 금리로 할인하므로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보험계약마진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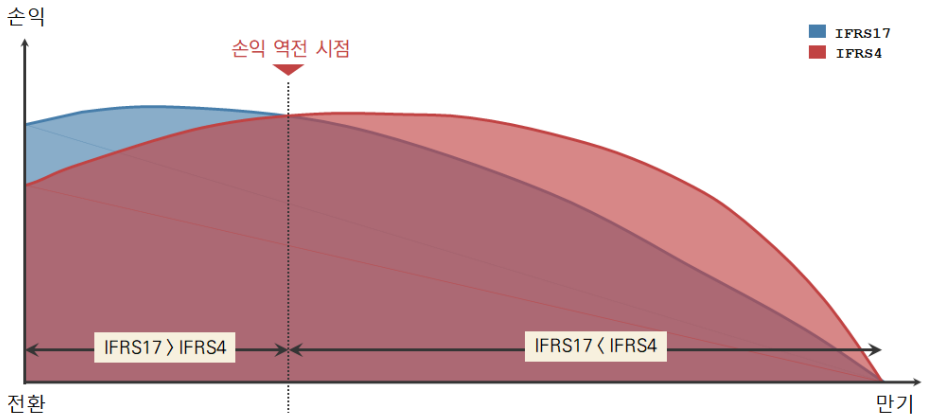
〈그림 Ⅳ-4〉 보험계약 현금흐름



즉, 예정이율 대비 높은 할인율로 인해 보험계약마진이 단기에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반면 이로 인한 높은 시간가치는 뒤늦게 금융비용으로 인식되어 신계약 초기에는 IFRS17 손익이 IFRS4 손익보다 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계약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수록 손익 역전시점이 연기되므로 IFRS17로 인해 오히려 영업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보험기간 초기에 해약환급금 등 보험금 지급이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 상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그림 Ⅳ-5〉 IFRS4와 IFRS17 손익 비교



자료: 이준호(2021)

2. 손익 관리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수익성은 높이되 이익변동성은 낮추려고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수익성만 본다면,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장성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율이 높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사망률, 해지율, 할인율 등의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종신보험 등 장기 보장성 위주 상품 판매 전략은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변동성도 증가시키므로 적정 비중을 찾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계적으로 보면 IFRS17에서 보험회사의 보험이익 규모는 보험계약마진이 상각되는 부분(상품마진) 이외에도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보험금·사업비의 차이(예측마진), 위험조정 변동(위험마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결국 보험회사의 보험이익은 상품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추정 능력과 비용 관리 능력에 따라 규모와 변동성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보장성보험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위험손해율은 130% 이상이며 최근 3년의 지급보험금 증가율 14.7% 및 위험보험료 증가율 11.9%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5년간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 원으로 추정된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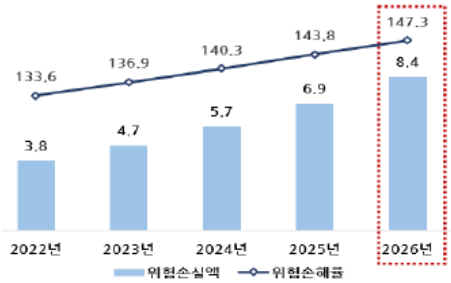
36) 김경선·정성희·홍보배(2022)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험손해율이 10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급보험금이 현행과 동일하게 증가한다면 5년 동안 매년 21%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림 Ⅳ-6〉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및 위험손실액 전망

(단위: 조 원, %)

〈현재 수준 유지〉



주: 연평균증가율은 위험보험료 11.9%, 지급보험금 14.7%임

자료: 김경선·정성희·홍보배(2022)

〈5년 내 정상화〉

주: 연평균증가율은 위험보험료 21.0%, 지급보험금 14.7%임

자료: 김경선·정성희·홍보배(2022)

연간 20% 이상 보험료 인상을 한 적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면 실손의료보험은 IFRS17에서 예상손실액 처리에 따라 계약 초기부터 당기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37]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품을 가정하였다.

〈표 Ⅳ-1〉 상품 가정

구분	주요 가정
실손의료보험	남자 20세, 100세만기 전기월납, 갱신주기 1년, 보장변경주기 15년, 월납보험료 4천 원, 계약 체결 후 5년간 선택효과(50~100%), 최종 보험금지급률 120%

최초 시점의 부채규모는 IFRS4에서는 0원이나 IFRS17에서 2만 원으로 계약체결 즉시 월납보험료 5배나 되는 부채를 적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손익도 IFRS4에서는 1.4만 원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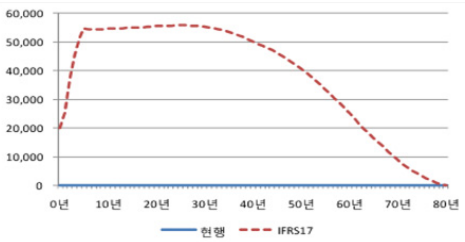
37) 보험개발원(2017)

IFRS17에서 △2.3만 원으로 계약초기부터 당기손실이 발생하므로 손실부담계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림 Ⅳ-7〉 실손의료보험 경과기간별 부채규모 및 당기손익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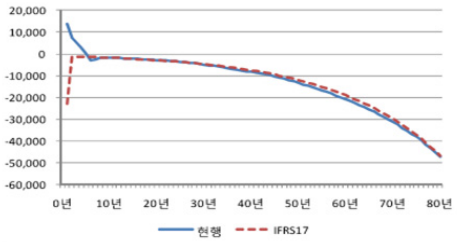
(단위: 원)

〈경과기간별 부채규모〉



자료: 보험개발원(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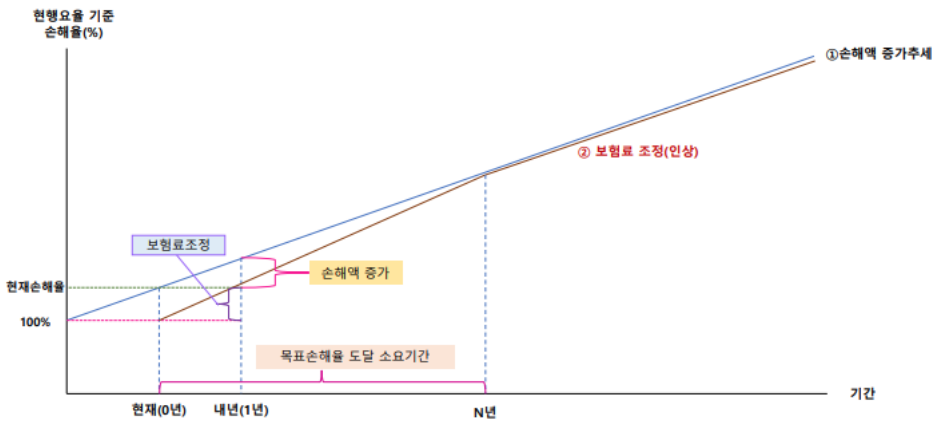
〈경과기간별 당기손익〉



자료: 보험개발원(2017)

따라서, 손해액 증가추세, 보험료 조정, 목표손해율 도달 소요기간 등 실손의료보험 부채평가를 위한 가정을 회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8〉 실손의료보험 현금흐름추정 요소



자료: 한국보험계리사회(2022)

이처럼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계리적 가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익이 달라지므로 감독당국,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가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자본 관리

자본 관리는 효율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가 적정한 규모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회사가 적정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상장폐지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어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이 어렵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적기시정조치는 RBC 비율에 따라 3단계(권고, 요구, 명령)로 구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적용한다.

〈표 Ⅳ-2〉 적기시정조치

구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기준	50%≤지급여력비율<100%	0%≤지급여력비율<50%	지급여력비율<0%
요구 사항	•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 고정자산 투자 제한 • 부실자산 처분 • 주주, 계약자 배당 제한 신규업무 제한 등	• 점포 폐쇄 및 통합 • 임원진 교체 요구 • 보험업 일부 정지 • 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 자회사 정리 등	•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계약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제3자에 의한 보험업 인수 •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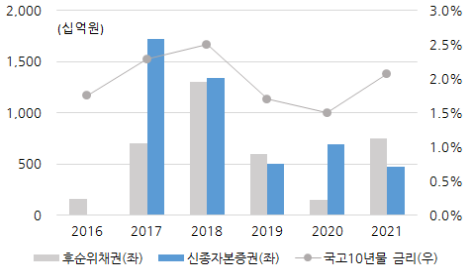
부실금융기관은 「금융 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지급여력비율 미달 등의 사유 발생 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경영상태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 금융당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IFRS17 도입과 함께 부채시가평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도입되는데, K-ICS 비율은 RBC 비율과 동일하게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되지만 평가 방법, 측정 대상 등에서 차등화된다.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 상향 조정, 신규 리스크 추가 등으로 인해 적정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용자본뿐만 아니라, 요구자본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IFRS17과 동시에 시행되는 K-ICS에서 제공하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관리 유인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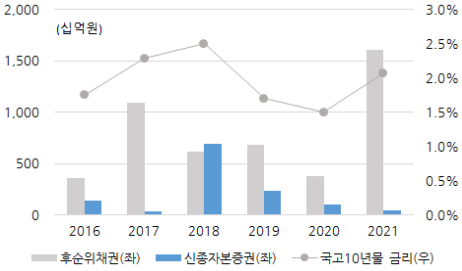
가. 가용자본

지급여력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므로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서는 요구자본 축소 또는 가용자본 증가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가용자본 관리방법인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은 가용자본 증가에 목적이 있다. 이 중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과 같은 자본성증권은 금리 변화에 따라 발행량 수준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RBC에서는 금리 상승 시 발행량이 증가하나 K-ICS 도입 이후에는 금리 하락 시 발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9〉 생명보험회사 자본성증권 발행 추이



〈그림 Ⅳ-10〉 손해보험회사 자본성증권 발행 추이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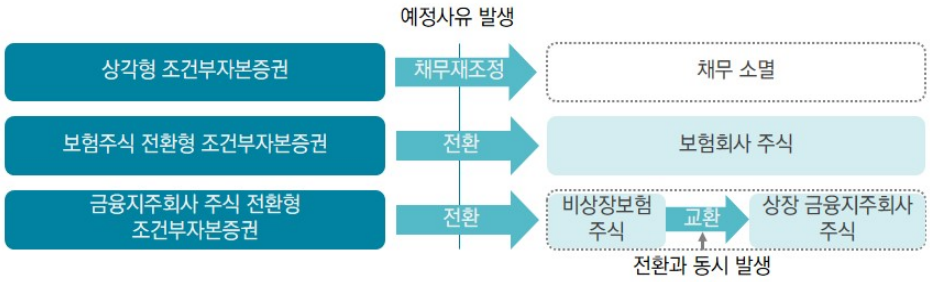
K-ICS에서 가용자본은 자본의 질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되며 보완자본은 총 요구자본의 50%가 최대한도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보통주 이외의 자본성증권은 총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초과하는 보통주 이외의 자본성증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며 만기 시 Lock-in 조항[38]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결산시점에 만기가 5년 미만이면 매년 20%씩 가용자본 인정금액에서 차감한다.

RBC는 가용자본에 대해 해당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인 반면 K-ICS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의 계약 조건에 따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K-ICS는 은행과 유사하게 손실흡수능력이 강화된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38) 보험회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연체이자 발생 등)이 없이 상환 및 배당(이자)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계약상 조건임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을 지칭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 발생 시 전환 방식에 따라 ① 원리금 상환 의무가 감면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②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③ 비상장주권법인의 경우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Ⅳ-11〉 조건부 자본증권 유형



유럽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Ⅱ)는 조건부자본증권을 기본자본(Tier 1)의 20%[39] 한도로 인정한다. 가용자본을 질(質)에 따라 3단계(Tier 1, 2, 3)로 구분하는데, 기본자본(Tier 1)은 요구자본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SolvencyⅡ 시행(2016년) 이전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경과조치 적용받는 경우 10년간(2025년 말)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이후 제외된다.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시행될 K-ICS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한다. K-ICS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총요구자본[40]의 15%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비조건부 신종자본증권도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나 총요구자본의 10%까지만 인정되며, 이러한 방식은 국제기준(ICS)과 동일하나 유럽기준(SolvencyⅡ)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이다.

조건부자본증권 도입으로 자본성 증권에 대한 선택지는 증가하였으나 가용자본 인정조건이 현재보다 강화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감소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39) EU(2015)

40) 이 때 요구자본은 총요구자본으로 상관계수를 반영한 요구자본 합계액인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 조정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나. 요구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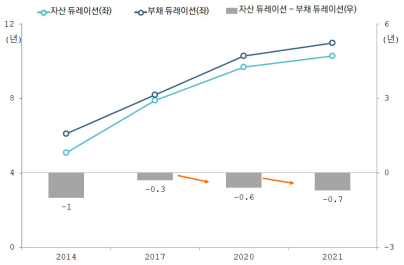
1) 장기채 매입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부채평균잔존만기(부채듀레이션)가 자산평균잔존만기(자산듀레이션)보다 더 길다. 자산부채듀레이션 불일치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채 매입을 통해 자산듀레이션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일반적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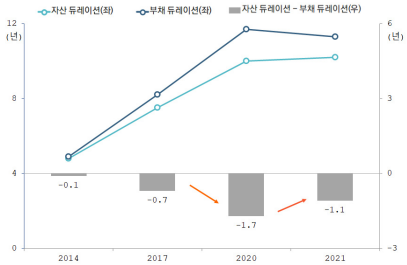
보험회사는 K-ICS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자산듀레이션을 증가시켜 자산-부채듀레이션 갭을 축소시키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 △0.7년, 손해보험회사는 △1.1년 듀레이션 갭을 나타낸다.

〈그림 Ⅳ-12〉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비교

〈생명보험회사 자산-부채 듀레이션〉



〈손해보험회사 자산-부채 듀레이션〉



자료: 기획재정부(2021)

장기채 발행현황을 보면 만기 30년물 이상 국고채의 발행은 매년 증가하여 발행 잔액이 200조 원 이상이다. 하지만 생명·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은 1,000조 원을 초과[41]하므로 국내 장기채만으로는 자산듀레이션을 증가시키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41) 2020년 6월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 748조 원, 손해보험회사 270조 원으로 합산하면 1,018조 원임

〈표 Ⅳ-3〉 발행잔액(국고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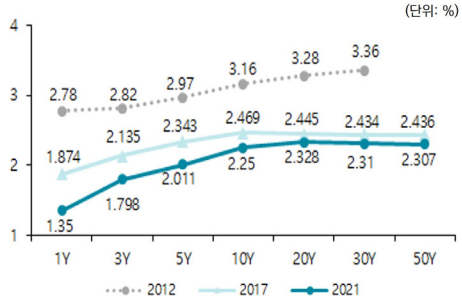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년물(비중)	-	-	-	-	12.5(1%)
3년물(비중)	51.1(9%)	47.2(8%)	47.4(8%)	62.7(9%)	82.3(10%)
5년물(비중)	109.5(20%)	104.2(18%)	99.3(16%)	109.1(15%)	117.7(14%)
10년물(비중)	209(38%)	204.5(36%)	217.6(36%)	249.4(34%)	264.6(31%)
20년물(비중)	108.3(20%)	117.5(21%)	124.8(20%)	136.7(19%)	145.3(17%)
30년물(비중)	67.6(12%)	90.2(16%)	115.8(19%)	158.1(22%)	205.9(24%)
50년물(비중)	1.3(0%)	3.4(1%)	6.7(1%)	10.8(1%)	15.4(2%)
합계	546.7	567.0	611.5	726.8	843.7

자료: 기획재정부(2022)

또한 장기인 국고채권의 매입 증가는 금리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국고채의 만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는 장기물 수요가 많아 만기가 긴 국고채 수익률에 대한 역전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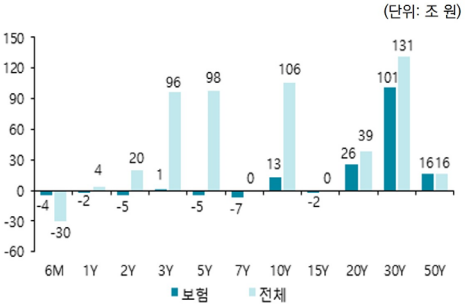
만기가 긴 채권 수익률의 역전 현상은 만기 30년 이후 국고채 금리 수익률이 만기 20년 수익률에 비해 낮은 현상을 지칭하며 임준환·황인창(2017)과 임준환·문혜정(2021)은 이러한 수익률 역전 현상을 보험회사의 국고채 수요 증가로 설명한다. 보험회사 국고채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자에 비해 보험회사는 만기 20년 이상 국고채 순매수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3〉 국고채 금리기간구조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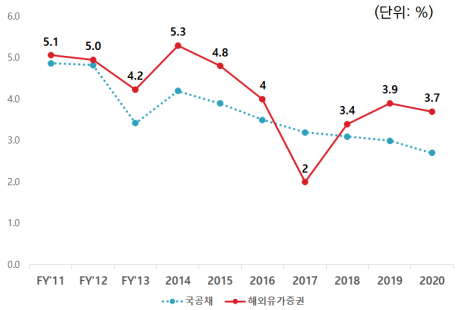
〈그림 Ⅳ-14〉 보험회사 국고채 순매수 현황('18. 1~'22. 3)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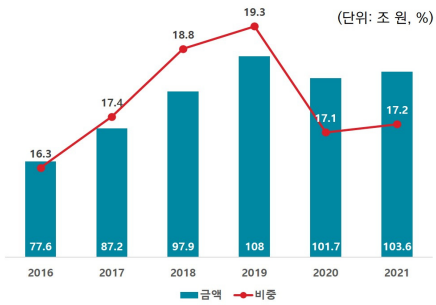
만기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국내 채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에는 국고채보다 수익률이 높고 만기가 긴 외화장기채권의 매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외화채권(외화유가증권)은 국공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나 환헤지 손실 등이 발생하면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IFRS17에서 보험부채는 통화별로 할인하므로 자산 내 외화채권의 비중이 높으면 서로 다른 금리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본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K-ICS 금리리스크도 통화별로 측정하므로 외화채권(외화유가증권)의 증가는 새로운 제도에서 금리리스크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화 채권은 과거에 비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Ⅳ-15〉 수익률 비교(국공채, 외화유가증권)



자료: 생명보험협회, 50년 통계

〈그림 Ⅳ-16〉 외화유가증권 금액 및 비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2) 파생상품

K-ICS는 RBC와 다르게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측정하므로 채권 매입뿐만 아니라 선도채권(bond forward), 이자율 스왑, 국채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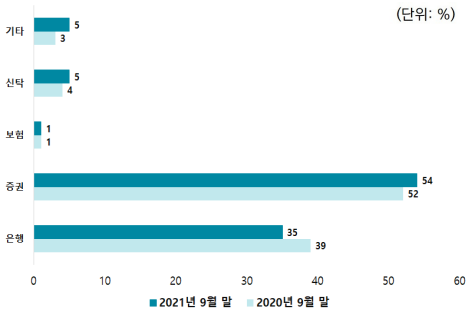
채권선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후 채권을 매수할 것으로 약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10년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5년 선도채권 계약매입이라면 5년이 지난 후 10년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42] 보험회사는 채권선도 매입을 통해 미래 시점의 채권 매입 가격을 현재에 확정함으로써 듀레이션 조건 충족과 수익 극대화를

42) 임준환(2018)

동시에 할 수 있다. RBC에서도 채권선도를 활용하여 금리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제도가 최근 개정[43]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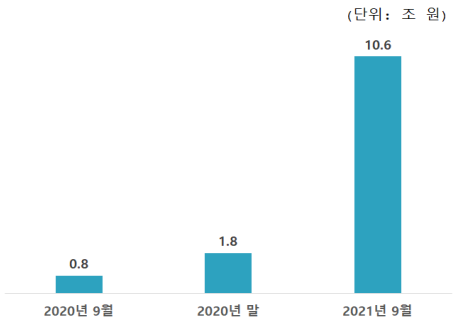
RBC에서 채권선도가 금리위험 관리 수단으로 허용된 이후 채권선도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등에 비해 파생상품 거래비중이 1% 수준으로 매우 낮으나 2020년 9월 말 RBC 제도 개선 이후 채권선도 거래금액[44]이 1년 만에 0.8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K-ICS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가 현재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17〉 업권별 파생상품 거래비중



자료: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그림 Ⅳ-18〉 채권선도 거래현황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한편, 채권선도는 계약 체결 시 즉시 금리위험 노출, 실제로 현물 채권이 양도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 장외 거래로 인한 거래 상대방 위험, 채권선도 결제시점에 채권 매입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하는 유동성 문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파생상품으로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이자율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채권선물은 현재 만기 10년 이하의 상품만 존재하여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관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 검토 중인 30년물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한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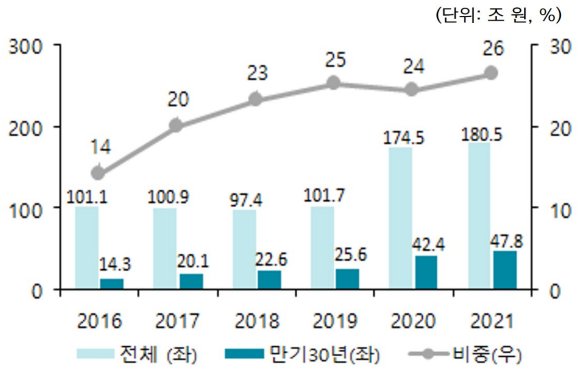
4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6. 30),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44) 금융감독원의 이자율선도 거래현황에는 채권선도 외에 FRA(Forward Rate Agreement)도 포함되나 보험회사는 채권선도 위주로 거래하므로 이자율선도 거래현황을 통해 채권선도 거래현황을 추정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2021)[45]는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갭 축소를 위한 보험회사의 수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초장기물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체 국고채에서 30년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21년 말 현재 26% 수준이며 발행금액도 50조 원에 가까워 과거에 비해 높은 비중과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고채 30년물 거래대금이 많지 않아 장기국채선물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46]이 있었으나 최근의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만기 30년 국채 선물 도입이 2024년 1분기로 예정[47]되어 있다.

〈그림 Ⅳ-19〉 국고채 발행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입보다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화별 부채 평가 및 환헤지 비용 등으로 인해 해외채권은 과거에 비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12. 24),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46) 연합인포맥스(2017. 1. 18), “국채선물 30년물 도입에 신중한 기재부 왜”

4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 10. 25), “제9회「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개최 –“국채 1,000조 원 시대, 도전요인과 새로운 도약” 주제로 성황리 개최–”

4. 소결

가. 보험영업관리

IFRS17 도입 준비를 위해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로 판매 전략이 변경되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14년부터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보장성보험의 판매량이 저축성보험을 능가하였다. 손해보험회사는 장기보험이 일반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원수보험료 규모가 더 크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영지표변화(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마진이 저축성보험보다 높으므로 매출 확대가 곧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된다.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의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제3보험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 중인 상품이므로 생명·손해보험회사 업권 간 판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손익관리

보험회사의 수익성만 본다면,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장성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율이 높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사망률, 해지율, 할인율 등의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종신보험 등 장기 보장성 위주 상품 판매 전략은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변동성도 증가시키므로 적정 비중을 찾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계리적 가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익이 달라지므로 감독당국,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가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자본관리

보험회사가 적정한 규모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IFRS17 도입과 함께 부채시가평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는 자산 및 보험부채에 대한

완전 시가평가, 리스크 평가 대상 다양화, 리스크 측정 방식 정교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 상향 조정, 신규 리스크 추가 등으로 인해 적정 K-IC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용자본뿐만 아니라, 요구자본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용자본은 조건부자본증권 도입으로 자본성 증권에 대한 선택지는 증가하였으나 가용자본 인정조건이 현재보다 강화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감소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자본 중 금리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채권 매입 외에 국채선물, 이자율 스왑, 선도채권(Bond forward)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화별 부채 평가 및 환헤지 비용 등으로 인해 해외채권은 과거에 비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